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

함 이기보까?



손흥민, BTS, 오징어게임에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띄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유치경쟁 중인 세계 유력도시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량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유치 예상효과	개최기간 2030. 5월~10월	개최장소 부산북항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명	경제적 파급 효과 61조원	일자리창출 50만명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 11 Vol. 49

Vol. **49**
2022. 11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체육회
김선관 회장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

이슈 & 포커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CONTENTS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49**
2022. 11

발행일 2022년 11월 15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49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편집인 성기환
편집·취재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김민기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

건강한 육체

04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남시협회
김선관 회장

08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체육지도자협회
오정룡 회장

12
부산스포츠 히어로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

16
스포츠 in 과학
최신 스포츠 기술의 발전



04

강

강인한 정신

20
부산체육 이야기
부산의 역동성 창출 공간으로서 바다,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24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

26
달려라 부산체육
소프트테니스 동호회 '백구클럽'

30
내일은 체육왕
(사)부산펜싱클럽



12

한

한마음 광장

34
이슈 & 포커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38
부산스포츠 기자단 에세이
꿈을 향해 달려가다
동아대학교 선수단

40
스포츠 PLUS
속도감 있는 팀플레이 배구

42
오늘의 10분 운동
구름처럼 가벼운 관절을 위해

44
슬기로운 건강생활
환절기, 감기를 쫓아내자

46
이달의 책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26

생

생생한 소식

48
지방체육회장선거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50
BSC 뉴스

52
구·군체육회 소식

56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58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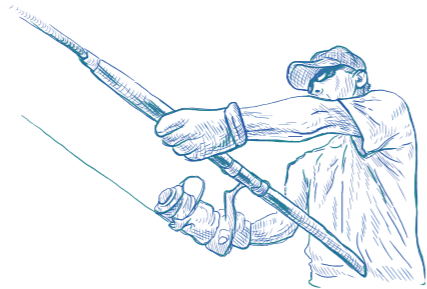
59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59

낚시, 그 짜릿한 매력 속으로

부산광역시낚시협회 제13·14대 회장,
성광물산상사 대표 김선관



김선관 회장과 낚시를 보면 수어지교(水魚之交)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김선관 회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의 낚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평생의 동반자, 낚시

천혜의 어장으로 불리는 울릉도에서 나고 자란 김선관 회장.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즐겨하던 놀이가 있었는데, 바로 '낚시'다.

“주변 환경 때문에 제게 바다는 놀이터였고, 낚시는 놀잇감이었습니다. 당시 동네에 있는 대나무 하나를 톱 꺾어서 낚싯대로 사용하곤 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울릉도를 떠나 부산으로 오게 되었지만, 김선관 회장과 낚시와의 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 낚시 제품을 수출하는 곳이었던 것. 어릴 때부터 봐왔던 낚시 관련 제품은 그에게 친숙했던 터라 직장에서 적응하기 수월했다고 한다. 현재도 무니오징어낚시, 한치 낚시, 갑오징어낚시 등 낚시 제품을 취급하면서 낚시 관련 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선관 회장. 그를 사로잡은 낚시의 매력은 무엇일까.

“손맛이죠. 낚싯줄과 바늘을 드리웠을 때, 고기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마

치 고기와 게임을 하는 거죠. 그 대결에서 승리하며 고기를 낚아챌 때의 손맛은 이루말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심신이 건강해진다는 점도 낚시의 매력으로 꼽았다. 낚시하러 바다에 가는 자체로 엔돌핀이 솟는 것은 물론, 푸른 바다 한 가운데서 손끝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선관 회장은 일본에서 제작한 정교한 루어 미끼를 가지고 루어낚시를 즐기고 있단다. 요즘 고기는 똑똑해서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미끼를 만들지 않으면 금방 알아차린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낚시할 때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낚싯줄도 가늘어야 하고, 미끼로 고기를 최대한 속여야 해요. 최근 서해안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4일간 했는데 매일매일 고기가 반응하는 게 달라요. 이를 빨리 캐치해야 좋은 조과로 연결되곤 합니다.”

김선관 회장이 사업차 제주도나 일본을 방문할 때, 낚시 일정을 꼭 잡는데, 그의 삶에서 낚시는 없어서 안 될 동반자인 셈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낚시체험 교실을 열어 많은 어린이들에게 낚시의 매력과 재미를 알려줄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신·구세대의 조화

김선관 회장은 낚시업계인들의 모임 중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부경조구경영자협회장도 역임했을 정도로 낚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낚시협회와 인연이 닿은 건 2019년 이사직을 맡으면서 부터였는데, 그러던 중 갑작스레 회장직이 공석이 되는 일이 생겼다.

“협회원들이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부산낚시를 대표하는 낚시협회가 좌초되는 건 낚시인과 낚시업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고심 끝에 협회원들을 믿고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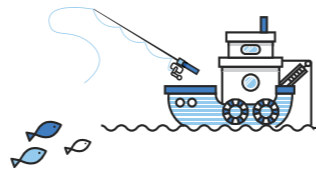
전임 회장의 공석 기간에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선관 회장은 2021년 제14대 회장을 연임하였다. 부산광역시낚시협회를 운영하면서 김 회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신·구세대의 조화’였다. 처음 협회 이사직을 맡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세대교체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낚시 원로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낚시인들의 추진력이 융화되어 낚시협회를 이끌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협회원들을 중심으로 낚시에 흥미가 있는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협회를 홍보하며 회원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죠.”

그 결과, 낚시협회는 현재 30여 명의 임원과 1,800여 명의 협회원이 모여 있는데, 이 중 80%가 젊은 세대라고. 이처럼 신·구세대의 조화를 통해 부산광역시낚시협회는 낚시 저변 확대를 위한 도약을 내딛고자 한다. 김선관 회장은 협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협회원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구성원 각자가 지닌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믿고 준비위원장(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죠. 저와 사무국장은 경비를 지원하거나, 업무를 추진할 때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등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일) 개최되는 제41회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바다낚시대회의 경우 낚시협회의 이창우 명예 회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협회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협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김선관 회장과 협회원간의 두터운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낚시를 즐길 환경 구축을 위하여

1968년 6월 창립하여 5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부산광역시낚시협회는 제1회 부산시장기 민물낚시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51회째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978년 시작된 제1회 바다낚시대회는 코로나 이후 올해 11월 제41회 대회를 개최한다. 굵직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를 이어오면서 자연을 지키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자연과 밀접한 운동인 만큼 바다 청소나 쓰레기를 회수하는 등 바다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온 상승과 지나친 조과로 고기도 많이 사라졌는데, 고기가 사라지면 결국 낚시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협회에서는 치어 방류 행사를 통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낚시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문 낚시를 넘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낚시로 유행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선관 회장. 더구나 부산에

서는 낚시를 즐길 환경이 적기에 부산광역시낚시협회에서는 지난 6월 부·울·경 낚시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으며, 앞으로의 낚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중앙부처나 시 관계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 낚시 대중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낚시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낚시 전시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낚시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을 보면 대다수 아버지를 따라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 만큼 우리 협회에서도 낚시체험 교실을 열어 많은 어린이들에게 낚시의 매력과 재미를 알려줄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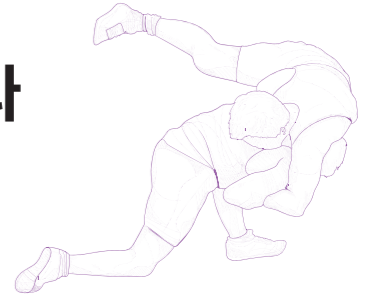
누구나 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선관 회장의 지론이다. 앞으로 낚시 문화를 바꾸고 만들어 갈 부산광역시낚시협회의 힘찬 출조를 응원한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대한민국 레슬링의 비상(飛上)을 이끌다

부산광역시체육지도자협회 오정룡 회장



훈련 과정이 힘든 건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일 테지만, 레슬링은 다른 종목 선수들도 인정할 만큼 훈련이 고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선수가 많지 않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레슬링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다. 바로, 오정룡 원로다.

레슬링 신동의 탄생?

오정룡 원로는 우리나라 레슬링 사상 최초로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 선수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오정룡 원로 역시 양정모 선수보다 앞서 우리나라 레슬링계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1963년 3월에 레슬링을 시작해 그해 10월에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레슬링계에 화려하게 입문한 데 이어 3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정룡 원로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5개의 금메달을 땀을 뿐만 아니라 1967년 인도 뉴델리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동메달은 금메달을 이기고 딱 메달이라 의미가 남다른데요. 그 대회에서 1위를 했던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제가 이겼는데, 다른 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점수 차로

3위를 한 거였어요.”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름을 떨친 오정룡 원로는 1968년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을 비롯하여 ‘제5회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가 레슬링을 시작한 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한다. 길을 걷다 우연히 레슬링 체육관을 보게 되었고, 체격이 작은 편이었던 그가 또래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레슬링을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시작한 레슬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건 잠깐이지만 초등학교 때 배운 씨름이 레슬링 기술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자상한 스승님을 만난 덕분에 힘든 순간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1968년 제19회 멕시코시티올림픽대회에서 5위에 오르며 국제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못 다 이룬 꿈을 이뤄준 제자들

1970년, 실업팀이 없던 당시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오정룡 원로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오게 되자 진로가 막막했었다고 한다. 그때 마침 동아대학교 레슬링부 코치 제안을 받았고, 무려 30여 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

“올림픽대회에 아쉬움이 남아서 한 번 더 도전해 보고 싶었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힘들다 보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지도자로서 내가 못 다 이룬 꿈을 이뤄보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정룡 원로는 국가대표일 때 태릉선수촌에서 직접 경험한 지도자들을 본보기 삼아 체계적으로 훈련하였다. 그의 제자로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1984년 LA올림픽대회 동메달리스트 손갑도, 1986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영구, 이삼성 선수 등이 있다. 특히, 양정모 선수는 그가 코치가 되었을 때 1순위로 스카우트한 선수였다.

“제가 대학생이고 양정모 선수가 중학생일 때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때도 양정모 선수는 몸이 유연하고 체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정룡 원로는 직접 양정모 선수의 스파링 상대가 되어 실력

을 키워주었다. 양정모 선수는 세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갖춰음에도 예산 문제로 1972년 뮌헨올림픽대회 출전이 좌절되었다. 그 충격으로 양정모 선수는 레슬링을 하지 않겠다며 6개월간 두문불출하였고, 오정룡 원로도 대표팀 코치직을 버리고 부산으로 돌아와 양정모 선수를 기다렸다. 그러다 전국체육대회를 한 달 앞두고 그를 찾아온 양정모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금메달로 화려하게 복귀, 이후 멋지게 스승의 꿈을 이뤄주었다. 오정룡 원로는 훌륭한 제자들의 이야기에 내내 흐뭇한 표정이었다.

레슬링을 통해 문화 교류에 앞장서다

오정룡 원로는 몽골과 인연이 깊다. 그가 대표팀 감독이었을 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몽골 레슬링의 전설 오이도프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오이도프 교수는 선수 시절 양정모 선수와 자웅을 겨루던 인물로, 오정룡 원로가 그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반가워했다. 그리고 오이도프 교수를 기념하는 시합이 있었는데, 그 시합에 동아대학교 레슬링부를 초청하며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습 상대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몽골에는 레슬링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체육



중·고등학교와 몽골 학교를 자매결연 맺게 했습니다.”

레슬링을 통하여 꾸준히 관계를 이어오던 오정룡 원로는 ‘한·몽골문화체육교류협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협회는 20년 넘게 운영 중이며, 몽골이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나담 축제’도 개최하고 있다. 축제에서는 몽골 전통놀이 등이 진행되는데, 그중 ‘씨름’은 우리나라 씨름과도 비슷해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올해 세계씨름대회에 출전하는 몽골 선수를 인솔하는 일도 오정룡 원로가 맡고 있다.

“레슬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술을 쓰기 때문에 모든 신체 부위를 단련해야 합니다. 훈련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훈련을 따라가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오정룡 원로는 ‘정신력’이 강하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를 하게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멋지게 그 일을 해냈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나라와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의 행보가 레슬링의 정신력을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

PROFILE

주요 이력

- 현)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체육지도자협회 회장
- 현) 한·몽골문화체육교류협회 회장
- 전) 부산광역시레슬링협회 회장
- 전) 동아대학교 레슬링부 코치, 감독
- 전) 제9회 인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대표팀 코치
- 전) 캐나다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대표팀 코치
- 전) 제9회 몽골 울란바토르 아시아선수권대회 대표팀 감독
- 전) 제2회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세계 군인체육대회(레슬링대회) 심판

수상 내역

- 1963~1965년, 1967년, 1969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 1967년 뉴델리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동메달
-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대회 5위
- 1968년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
- 1968년 제5회 대한민국체육상
- 1982년 대통령 체육포장(지도자)
- 1985년, 1994년 대통령 체육표창(지도자)
- 1997년 몽골올림픽위원회 표창(지도자)
- 1999년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표창(지도자)
- 2013년 부산광역시 문화상(체육 부문)



부산 검도, 59년 만에 정상에 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부산 선수단의 다양한 활약 중 단연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데, 바로 부산광역시체육회 남자검도실업팀이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무려 5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것. 부산 검도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서준배 감독과 7인의 검객을 만나보자.

59년 만의 값진 금메달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은 2009년 남자팀 이후 올해 여자팀을 창설해 국내 검도실업팀 중 유일하게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녀동반 입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출전한 검도실업팀. 그러나 여자팀이 예선에서 아쉽게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그 점이 남자 선수들에게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남자팀 기량으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로 우승까지 거머쥐게 된 것은 물론 부산 남자검도가 59년 만에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기저기서 축하 연락이 올 정도란다. 더욱이 2010년 부산 검도실업팀에 합류 이후, 선수 생활에 이어 코치, 감독대행을 거쳐 감독직을 맡고 처음 출전한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으니 서준배 감독의 감회는 더욱 남달랐을 것. 서 감독에게 전국체육대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묻자, 단연 이번 대회의 8강전 울산시청팀과의 경기를 꼽았다.

“울산은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홈그라운드였던 만큼 응원하러 온 관객도 상당히 많았죠. 많은 울산 시민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고, 대표전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김민규 선수가 짜릿하게 승기를 잡아내며 명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이후 4강전 대구 달서구청팀과의 대결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문민석 선수다. 문 선수가 여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동기 선수가 마침 대구 달서구청팀의 대표 선수로 출전하였던 것.



“이번에야말로 실욕전을 펼칠 기회라 생각하고 후보 선수였던 문민석 선수를 출전시켰죠. 저의 확신에 보답이라도 하듯 문 선수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체육대회라는 무대에서 처음으로 동기 선수를 이기며 부산 검도실업팀이 결승전에 올라가는 데 혁혁한 공까지 세워졌습니다.”

지난 7월 창녕군수기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 남자 7인조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던 부산광역시체육회 남자검도실업팀. 이번 전국체육대회 우승은 서준배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뒷받침된 결과물이라.

영광의 주역, 7인의 검객

부산 검도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김민규, 김태근, 문민석, 이상호, 조성준, 최현우, 하태호 선수. 이들을 대표해 김민규 코치 겸 선수와 하태호 선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두 선수 역시 이번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중 8강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였다. 하태호 선수는 홈팀인 울산과의 경기에서 선수들의 컨디션 상태가 가장 좋았다고.

“울산팀과의 승부는 대표전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표전은 20분 동안 접전이 있었는데, 긴 승부 끝에 김 코치님이 득점했던 터라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8강전 명승부의 주인공이었던 김민규 선수는 당시 시합에 들어가기 전 서준배 감독의 말을 떠올렸다고 한다.

“감독님께서 시합 전에 선수들 얼굴을 한번 보고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선수들과 한 명씩 주먹을 맞대며 응원을 받고 경기에 임했죠. 선수들과 함께 시합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부산 검도실업팀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승부에서 이길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태호 선수는 아버지의 권유로 검도장을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정식 선수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 실업팀에 입단하려고 했으나, 팀의 해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때 서준배 감독님께서 입단 제의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검도 선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제대 후엔 검도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더불어 경찰청 장기대회에서 우승해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 6년 차가 된 김민규 선수는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 늘 패턴을 달리하며 검도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우승이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부산 검도가 강팀임을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항상 서로를 배려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서준배 감독님과 검도실업팀 선수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남녀동반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목표로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은 지도자와 선수 간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서준배 감독의 스타일 덕분에 항상 쾌하고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 속에 훈련에 임하고 있다. 특히 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항상 기본기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검도는 체급 상관없이 기술로만 승부를 보는 종목이기에 기본 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수들과 직접 대련하며 지도자와 선수 간의 신뢰도 쌓아가며 사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덕분에 검도실업팀 선수들은 선후배 상관없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다 보니 선수 개인은 물론 팀 전체가 성장하게 되었죠.”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은 우승에 자만하지 않고 내년 전국체육대회 남녀동반 종합우승을 목표로 더욱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오직 부산 검도 발전을 위해 달려왔던 서준배 감독과, 검도의 간절함을 가진 선수들. 그들이 써 내려갈 또 하나의 멋진 드라마를 기대하며 응원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남자검도실업팀 주요 수상내역

2008	실업팀 창단
2010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동메달
2022	창녕군수기 하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
202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금메달

Mini Interview

서준배 감독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은 2008년 남자팀으로 창단한 뒤 올해 여자팀이 창단되어 국내 유일 남녀 혼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검도실업팀은 그동안 창단과 해체를 반복하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검도 선배님들, 지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우승을 발판 삼아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실업팀을 향한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과학기술은 스포츠 및 건강 분야에서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

Fitbit, Apple Watch, Samsung Health와 같은 건강 측정 기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부터 무선 GPS 추적기(SPT, JOHAN Sports, Tracktics GmbH 등)에 이르기까지 선수의 위치, 달리기 속도, 전반적인 기록을 측정한다.

최신 스포츠 기술의 발전



Professional Experience

글 _ David O' Sullivan
(데이비드 오 설리반)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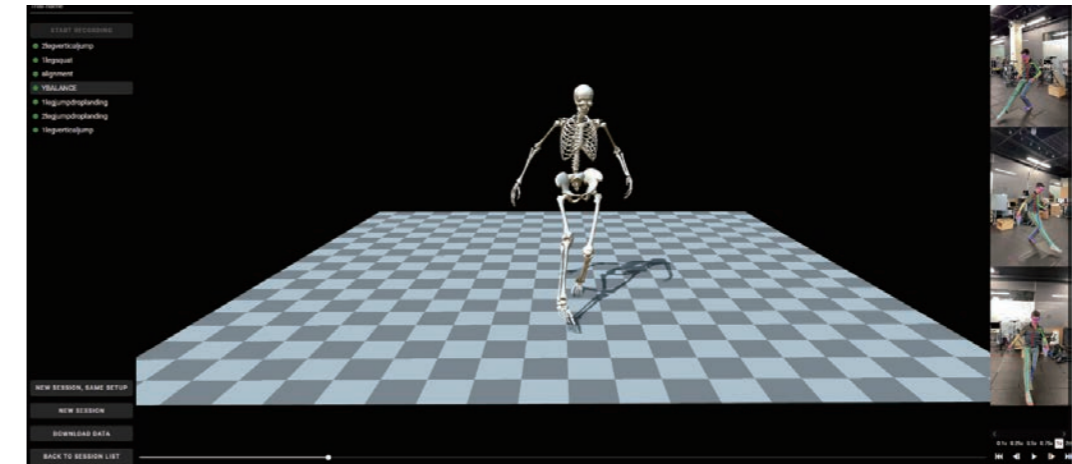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2014~현재)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조교수(2010~2014)
서울대학교 운동역학 석·박사(2005~2013)
Trinity College Dublin 기계공학 학부(1999~2003)

번역 _ 김경식(부산대학교 대학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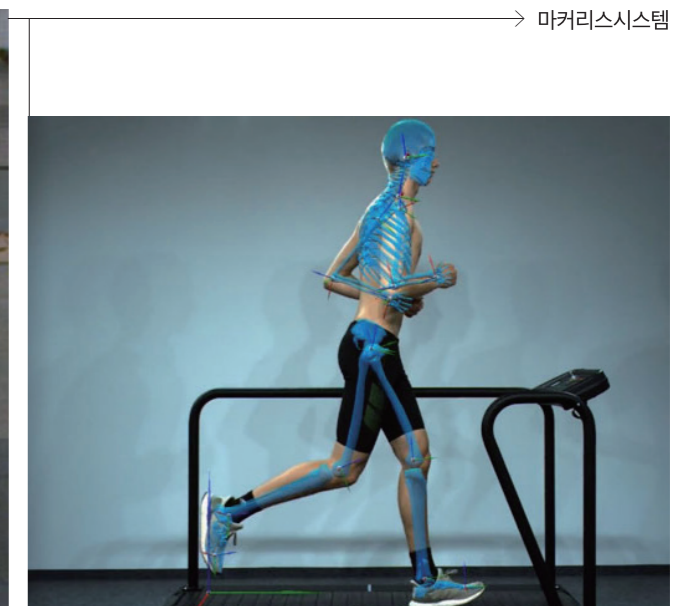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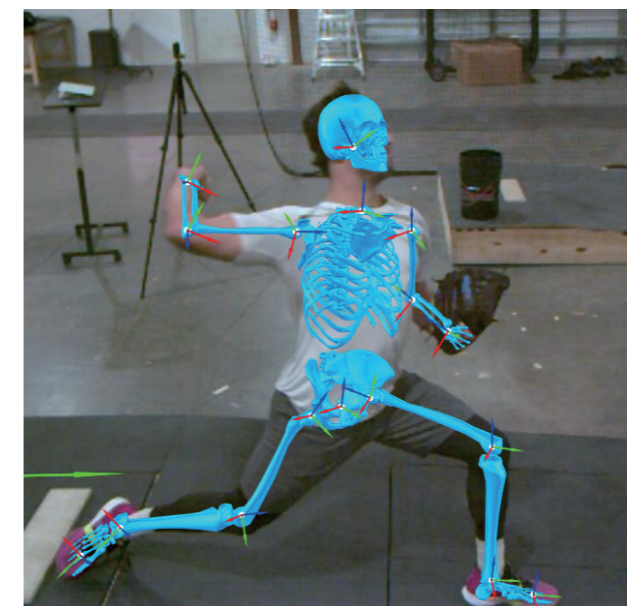
마커가 있는 모션캡처에서 마커가 없는 모션캡처로의 패러다임 전환

전통적으로 모션캡처는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신체의 관절과 여러 중요 지점에 반사 마커를 오랜 시간 들어 붙이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현재는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고 고해상도 카메라의 발전, 스마트폰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단 2대의 스마트폰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보다 가성비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오픈캡(OpenCap) 애플리케이션은 이를 위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개발된 무료 소프트웨어이다.



오픈캡(OpenCap) 애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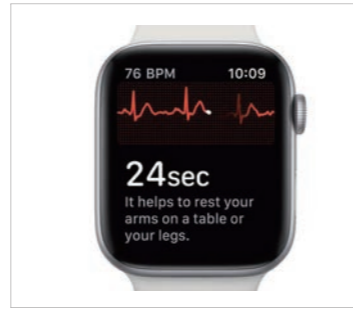
Theia, Target 3D, Simi shape 3D 등과 같은 마커리스시스템은 신체 움직임 영상데이터로부터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인공지능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적게는 2,000만 원 정도 더 비싸고 움직임에 따라 최소 4대의 카메라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보행과 야구 투구 동작에 Theia(프로그램)를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사람의 모든 움직임에 적용할 수 있다.



→ 마커리스시스템

건강 상태 감시(Health monitoring)

FDA의 승인을 받은 애플, 삼성 갤럭시, 핏빗과 같은 스마트 워치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사용, 즉 만보계로 사람의 일일 걸음 수, 신체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센서 비용의 감소와 컴퓨터 성능향상으로 스마트 워치는 신체 활동 수준 이상의 측정이 가능하며 수면 시간, 호흡 속도, 심박수, 심박수 변화량, 산소 포화도, 피부 온도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산소 포화도 같은 데이터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유용했으며, 코로나 진행의 잠재적 심각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심박수 변화량은 선수들의 신체 상태(회복)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은 선수들이 훈련 강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보다 일반적인 건강 모니터링의 경우,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한국에서 증가한 비만과 우울증에 대한 가능성을 단계별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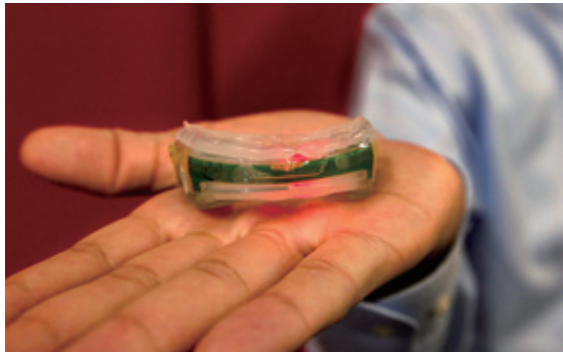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



핏빗 센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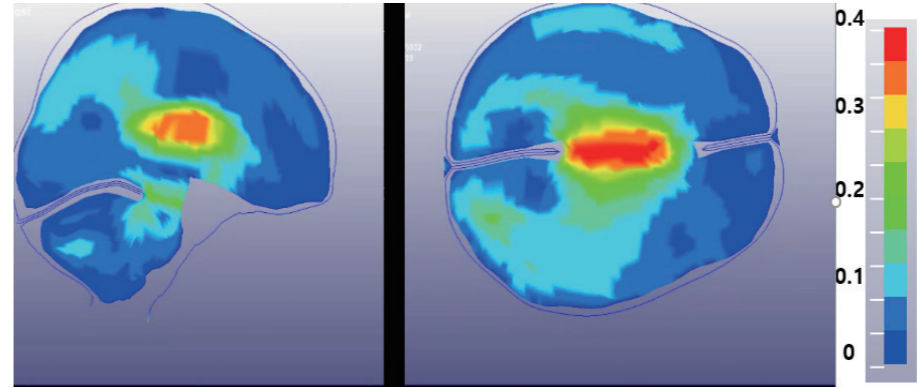
머리 부상

스포츠에서의 부상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으며 경미한 뇌진탕은 최대 1년까지 지속되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 중 머리 충격을 측정하기 위해 헬멧이 있거나 헬멧이 없는 스포츠를 위한 무선 가속도계 기반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축구, 태권도, 이종격투기(MMA) 등과 같은 머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스포츠를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계속 가능한 마우스 피스를 개발했다. 미식축구와 같은 머리 보호구가 필요한 스포츠의 경우 Simbex Head Impact 원격 측정 시스템(HITS)이 미국의 미식축구 협회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충격 특성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충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뇌의 손상을 예측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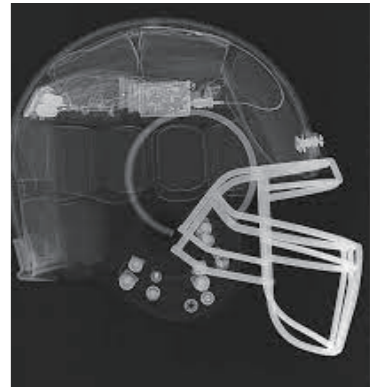


→ 내부에 전자 측정 센서가 있는 마우스 피스

→ 운동 선수를 위한 원하는 색상과 디자인 맞춤형 마우스 피스



뇌에 나타난 손상정도



미식 축구 헬멧에 내장된 HITS 시스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 GPS) 추적기

GPS는 1944년 노벨상 수상자 Isidor Rabi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97년에 걷기, 달리기 및 사이클 선수 측정에 처음 사용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데이터 분석 능력의 향상과 GPS 가격 감소로 인해 럭비, 축구, 미식축구, 사이클 등과 같은 스포츠 시장에 출시되는 GPS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축구 및 럭비와 같은 팀 스포츠는 팀의 각 선수에게 GPS 센서를 사용하여 달리기 속도, 전력 질주 능력, 전체 이동거리, 경기장에서의 위치 측면에서 선수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시간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써 코치와 경영진은 각 선수의 상태를 파악하고 경기력 저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운동선수가 피로로 인해 발생 가능성 있는 여러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선수와 코치 모두에게 이 측정 데이터는 훈련 계획을 개선하고 경기 전략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습 중 측정조끼를 입은 축구선수



(유니폼 내부에 GPS 센서가 장착된 선수) 센서는 관중을 위해 경기의 즐거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 시즌 동안 상위 10명의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보여준다.



시즌 동안 상위 10명의 럭비 선수가 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

부산의 역동성 창출 공간으로서 바다,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Professional Experience

글 _ 이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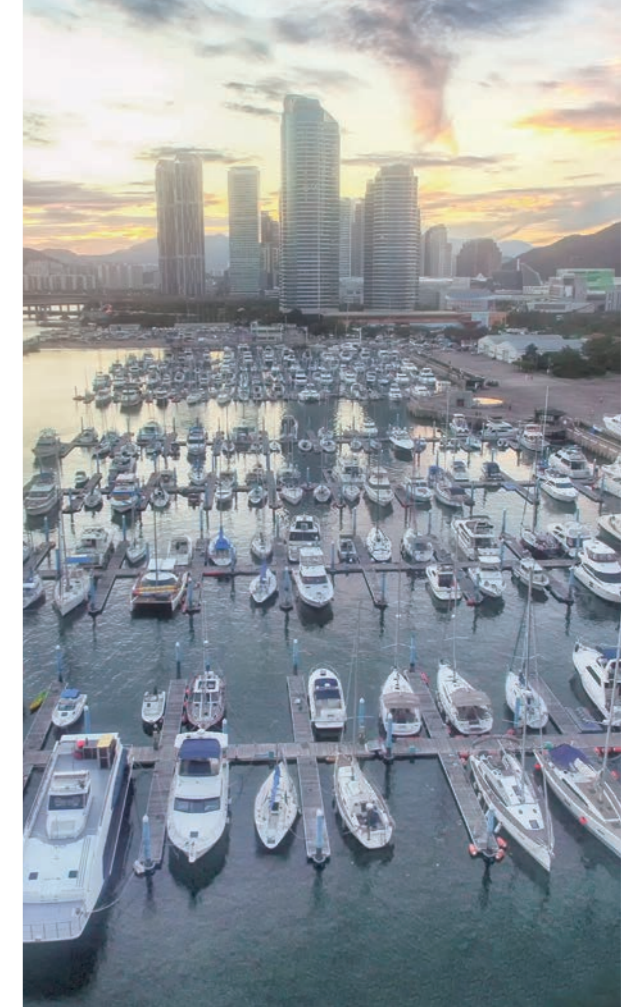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경제연구실 연구관(1992~1997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1997~2020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근명예연구위원(2021~현재)
- 국무총리실 규제위원회 전문위원
- 여수엑스포 해양관광 자문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팀장, 여촌해양관광센터장, 수산정책연구실장, 어촌양식연구실장, 어촌정책연구실장 등

바다는 부산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는가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을 방문한 몽골 여고생이 ‘바다를 보고 싶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잊을 수 없다. 내륙국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바다를 보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의 하나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방증이 아닐까? 비슷한 상황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부산을 방문하는 이유를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많은 관광객이 바다, 특히 해운대에 간다고 하지 않을까? 바다를 제외하고 ‘부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바다는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부산의 가치 창출은 바다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부산의 소멸을 예상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가임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정태적 지수다. 도시는 인구의 단순한 정태적 지수로 지속 혹은 소멸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정태적 요인과 동태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유지 혹은 발전한다. 도시의 동태적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유동성과 인구의 유동성으로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인구의 장단기 유동성이 소비 혹은 생산의 경제적 활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시의 유동성을 높이는 요인은 다양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와 관계가 있다. 삶의 질은 소득, 의료, 문화, 교육, 여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은 각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이 도시의 유동성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산의 유동성은 부산시민의 이동은 물론이고 부산 이외의 지역주민이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부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자산은 유형 혹은 무형의 자산이 있으며, 바다는 부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자산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부산의 바다가 부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자산임을 인정하는 것이 ‘해양수도 부산’이다. 대한민국의 바다와 관련한 활동의 거점으로서 부산의 역할이 활성화될 때 역동적인 부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강릉항 마리나항과 울릉도 여객선 정박장

부산이 해양수도로 가는 길에 걸림돌은 없는가

‘왜, 부산이 해양수도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다. 그 대답이 부산을 해양수도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답은 종결의 의미가 있다. 부산이 해양수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 때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질문 중에 ‘부산은 해양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여야 하지 않을까? 바다의 역할은 다양하다. 바다를 이용하는 주체는 바다의 기능을 활성화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사람이 정책이다. 따라서 바다의 이용주체가 그들 스스로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바다의 이용주체 간의 갈등으로 바다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산의 유동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서 부산광역시방자치단체 각 부서의 칸막이 행정은 부산의 해양수도로써 역할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바다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통한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해양수산국의 업무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연안도시인 부산광역시방자치단체의 각 부서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바다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바다와 관련한 업무의 연계성을 갖는 열린 사고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해양수도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해상, 해중, 해저로 이루어져 있는 바다는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품고 있다. 또한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역은 바다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바다의 다양한 공간

들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다의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활용을 저해하고, 단순한 활용에 그치는 사례가 바다의 잠재적 가치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의 공간 활용정책은 일반적으로 항만, 해양, 그리고 수산·어촌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바다 관련 활용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분야의 칸막이가 바다의 잠재적 가치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바다 관련 활용정책 간의 비연계성은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 바다공간 정책의 칸막이는 중앙정부 담당 부서의 투자사업의 중복투자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바다 관련 중앙부처의 국비 투자사업 중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된 관심으로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소규모 투자사업의 투자기회를 상실하여 통합적 바다 공간정책의 투자성과 상승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바다의 다양한 기능 활용을 위한 인적자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바다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의 조사와 분석, 나아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인적자원 육성계획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산 바다의 가치창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해양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해양수도의 기반 조성해야

바다를 활용한 역동적인 부산을 이끌 수 있는 분야 중에 핵심은 해양스포츠다. 해상과 해중은 해양스포츠의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해상과 해중은 수산업의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수산항 마리나 전경



제주 김녕항 마리나 전경과 요트투어 전경

해운대구와 기장군에는 바다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마을어장이 있으며,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촌계원이 있다. 또한 어항은 어촌의 생산기반시설로서 어선 정박은 물론 어촌복지와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어업인이 활용하는 어장과 어항은 해양스포츠 활동 공간으로써 활용할 경우 갈등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양스포츠와 수산업의 공존을 위해선 바다 공간의 통합정책을 통해 어촌주민의 배타적 공간인 어장과 어항을 개방적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전곡항, 강원도 강릉시의 강릉항과 양양군의 수산항, 경상북도 울진군의 후포항, 경상남도 거제시의 지세포항, 그리고 제주도의 김녕항은 바다공간 통합정책의 우수 사례다. 특히 제주도 김녕항은 국가어항임에도 민간 투자자가 어항수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민간 요트투어 경영자

는 지역 청소년에게 요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어항수역의 일부를 마리나로 조성한 어촌은 인구의 유동성 증가는 물론, 경제적 유동성도 증가하여 지역 활성화가 이뤄져 어촌소멸의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 부산 연안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강서구 명지는 바다를 접한 부산의 지형적 특성이 갖추어져 있고, 공단도 위치해 해양스포츠와 연관된 해양레저보트와 해양레저기구 생산 등의 제조업은 물론 해양교육 및 숙박과 같은 서비스산업 등 해양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1차 산업인 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와 교육산업을 포함한 해양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바다 공간의 통합정책 수립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울진 오산항 해양레포츠센터 전경 및 스쿠버 교육 장면

행복한 체육, 구민과 함께!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
Daum CAFE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체육으로 행복을 열어가는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는 2016년 통합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하여 2021년 법인화를 완료하였다. 여자배구와 야구의 메카도시인 동구에선 코로나19를 지나 더욱 든든한 구민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문화 선양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씨름대회

지난 9월 3일(토)에 열렸던 20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에서 동구체육회가 종합우승을 하였다. 동구체육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래 첫 종합우승이라 더욱 값진 결과였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동구씨름협회를 향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은 물론, 미리 선수를 선발하여 유도체육관에서 1개월에 걸친 특별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금껏 노력한 땀의 결실을 보여주듯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동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선수 선발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렇듯 동구체육회가 씨름에 진심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씨름에 큰 업적을 남긴 노한성 장사는 동구 출신으로, 체육회는 그를 기리는 씨름대회 '노한성장사배 씨름대회'를 오래전부터 구민운동회 때 함께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지만, 2023년부터 더욱 풍성한 구성을 위해 부산역에서 단일 씨름대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역은 누구나 오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기에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콘셉트로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인 씨름을 알

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향한 아낌없는 열정으로!

코로나19가 풀리면서 동구체육회는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매년 가을에는 '구봉산 고유제' 및 '구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동구의 자연과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구에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체육을 통해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동구체육회의 목표는 '서로 함께'이기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구민이 한데 어우러져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이 정착되도록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있다.

동구는 예전부터 전문체육의 튼튼한 뿌리로서 수정초, 경남여중, 경남여고로 이어지는 여자배구와 동일중앙초, 부산중, 부산고로 이어지는 야구에서도 프로선수를 배출해 왔다. 성남초 농구, 범일초 배드민턴, 부산서중 체조 등에서도 선수 육성이 활성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이 무궁무진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12월 동구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으로 한국 체육의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데 일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짜릿한 속도에 흠뻑 빠져들다

소프트테니스 동호회 '백구클럽'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단정한 유니폼을 갖춰 입고 열정적으로 운동하는 테니스의 매력을 고스란히 가져와,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재탄생한 소프트테니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소프트테니스 동호회 백구클럽에서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며 행복으로 가득 찬 회원들을 만나보았다.

흰색 정복 입은 회원들 모습에 반하다

소프트테니스란 19세기 말 일본에서 테니스를 들여와 누구나 쉽게 칠 수 있게 변형하여 만든 스포츠다. 당시 수입해서 쓰는 테니스공이 비싸고 일본에선 제작하기 힘들어 자체 생산 가능한 고무 공 형태로 만들어 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개화파 김옥균 선생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1900년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각 학교에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이미 120년이 넘는 유서 깊은 스포츠라 할 수 있다.

“딱딱한 공으로 치는 테니스에 비해 공이 부드러워 여성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도 치기 쉽다는 것이 소프트테니스의 장점입니다. 또 바운스된 공이 날아오는 속도가 테니스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경기가 박진감 넘친다는 점도 소프트테니스의 매력입니다.”

소프트테니스 동호회 '백구클럽'의 김양미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신이 처음 소프트테니스를 접했을 때의 생생한 기억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당시 그는 백구클럽이 시합을 하던 소프트테니스 코트 옆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러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경기 관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자신도 경기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교장·교감 선생님이나 은행장 같은 분들이 이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얀 정복을 입고 즐겁게 공을 치고 계셨어요. 또 제 옆으로 지나가는 나이 든 여성 회원 분도 하얀 테니스복을 입고 라켓을 메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15년간 소프트테니스의 매력에 빠져 살았고 회원들에게 신망을 얻어 최연소 여성 회장으로 2년 전부터 백구클럽을 이끌고 있다.



자나 깨나 소프트테니스 생각뿐

백구클럽은 1968년에 창립되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소프트테니스 동호회다. 테니스 코트를 대여해야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를 갖고 있는 교육 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사정으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닌 끝에 현재 영도의 광명고등학교에 정착하게 되었다. 옛날부터 다니던 회원들은 멀리서도 오지만 현재는 접근성이 좋은 영도 주민들이 회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

“백구클럽이라고 하니까 강아지 이름 같은데 실은 하얀 공을 뜻하는 ‘백구’에서 비롯된 이름이에요.(웃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광명고등학교 코트는 부드러운 흙으로 이뤄진 클레이 코트라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슬라이딩도 잘 되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점도 자랑거리입니다.”

백구클럽은 매일 오후 4시~9시 사이에 회원들이 코트에 와서 자유롭게 연습이나 경기를 한다. 회원 수는 35명 정도인데 자신이 치고 싶을 때 언제나 와서 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평균 20여 명은 늘 모이게 된다고.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는 대회와 3달에 한 번씩 치르는 대회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순위도 매기고 상품도 푸짐하게 많이 걸기 때문에 회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이벤트이다. 거기에 더해 1년에 1~2회 정도 야유회를 가는데 그때도 회원들은 공과 라켓을 들고 가서 주변 테니스 코트에서 즉석 시합을 할 정도로 회원들은 ‘소프트테니스에 진심’이다.

“저희 동호회가 화합이 잘 되는 이유는 대회가 있는 날은 물론

이고 평일에도 회원들끼리 모여 시간을 자주 갖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경기 방식이나 상대의 자세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곤 하죠.”

자기 일처럼 클럽 일을 행하는 회원들

백구클럽 회원들은 모두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음알이로 이곳에 가입했다고 한다. 한때 테니스 코트 옆에 신입회원 모집 플래카드를 달아 많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운동을 즐기러 오는 게 아니라 영업 등 다른 의도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방식은 그만됐다고. 대신 기존 회원들이 보증하는 믿을 만한 사람들로 회원이 충원되기 때문에 동호회 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고 모두 원만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저희 동호회는 클레이 코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나 뒤처리에 품이 많이 듭니다. 사용하기 전에 소금을 뿌리고 라인을 그려야 하고 마친 후에는 코트를 다 쓸고 나와야 해요. 그런데 저희 운영진이나 회원 분들이 한마디 불평 없이 자진해서 모두 그런 일들에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모두가 백구클럽에 대한 애정이 깊은 거죠.”

김양미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그렇게 소프트테니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원 중에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증세가 크게 호전되어

의사들이 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일반 테니스에 비해 공의 속도가 빨라서 신나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당한 양의 유산소운동을 하게 되어 살이 썩속 빠진다고. 공이 라켓에 맞을 때 ‘탕, 탕’ 울려 퍼지는 경쾌한 타격음과 손끝부터 온몸에 전해지는 짜릿한 충격 또한 맛을 들이면 헤어날 수 없다.

김양미 회장은 무엇보다 소프트테니스 실력이 늘어갈수록 자신감이 붙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니까 다른 일상생활도 활기차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백구클럽 회원들이 즐겁게 운동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늘 건강하고 밝은 미소를 간직하며 지내는 동호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Mini Interview



소프트테니스는 공이
부드러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연혁

- 1968년 10월 백구클럽 창립
- 2015년 1월 제24대 변용섭 회장 취임
- 2017년 1월 제25대 조명동 회장 취임
- 2019년 1월 제26대 황동광 회장 취임
- 2021년 1월 제27대 김양미 회장 취임



소프트테니스 동호회 백구클럽 김양미 회장

안녕하십니까. 소프트테니스 동호회 백구클럽 김양미 회장입니다. 소프트테니스는 일반 테니스와 달리 공이 부드러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 해도 남성은 3~4개월, 여성은 6~7개월 정도 연습하면 다른 회원들과 같이 시합을 즐기는 데 무리가 없으며 무엇보다 주고 받는 공의 속도가 빨라서 시합을 하다 보면 흥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싹 사라집니다. 저희 백구클럽은 창립한 지 54년이 된, 부산에서 가장 전통이 깊은 소프트테니스 동호회입니다. 회원들의 인품이 다 훌륭하시고 서로가 한 식구처럼 잘 챙겨주기 때문에 단순한 운동 동호회 회원을 넘어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같은 관계라 생각하며 모두 행복하게 동호회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배움의 문 (사)부산펜싱클럽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대한민국, 부산에만 해도 수많은 펜싱클럽이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점이 부산펜싱클럽을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 바로 부산 유일·국내 최초의 사단법인 펜싱클럽으로 펜싱이라는 스포츠를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클럽, 부산펜싱클럽을 함께 만나러 가보자.

전국 최초 사단법인 펜싱클럽

코로나가 한창이던 21년 8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부산펜싱클럽은 전국 최초의 비영리 펜싱 단체로서 학교 연계 '한 종목형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선정 되었다. 어느 스포츠라도 선수의 숫자가 많을수록 전문 선수를 키워내기 좋은 법이다. 그러나 펜싱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원하는 선수들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부산, 나아가 한국 펜싱이 함께 성장하도록 힘을 보태야 하겠다는 생각이 (사)부산펜싱클럽을 설립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교육청 등에서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선수 풀을 확장하고 있다고 박민준 (사)부산펜싱클럽 사무국장은 말했다.

스포츠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시도

연계된 기관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다문화 가정 아동, 사회적 취약계층처럼 스포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과 일반 시민들도 무료 펜싱, 장애인 펜싱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펜싱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설립 당시 방역 조치에 혼선이 있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도 손 놓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다고 한다. 특히 초창기 클럽을 알리기 위한 노력 중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이 온라인을 통한 홍보였다. 지역내 맘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물을 꾸준히 올렸는데 자녀를 둔 부모들이 SNS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홍보 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지역 친화적 클럽으로 자리 잡기 위해 주변부터 차근차근 공략하는 것. 아무래도 멀리서 운동을 하러 오는 것 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열정적인 회원이 되기 쉽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초창기 대비 많은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현재 53명의 회원이 클럽을 찾아주고 있다.

함께하는 클럽이 되기 위한 노력

(사)부산펜싱클럽은 회원들끼리 단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여는 자체 대회이다. 클럽 내 회원들간 진행되는 작은 대회지만 티셔츠나 텀블러 같은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상장과 메달도 수여한다. 입상하는 데 가치를 두기보다는 본인의 힘으로 성과물을 가져간다는 점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수가 학생 신분이라 운동뿐 아니라 시험기간에는 별도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학업을 병행한다. 코치를 겸하고 있는 박연구 회장은 국가 대표 경력만 8년, 펜싱 경력 46년의 베테랑 코치이다. 운동을 할 때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코칭을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이 내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학부모들의 믿음과 클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다.



전 종목을 향한 선수 육성 꿈꿔

클럽을 통해 발굴된 선수가 대회에서 입상하고, 전문선수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낀다는 박민준 (사)부산펜싱클럽 사무국장. 서부교육청 주최의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프로그램을 할 때였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주고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걸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수업 시작 전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워야 하는데 과연 재미있어 할까?’라고 생각했던 고민이 무색할 정도였다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잘 따르고 즐거워하는 얼굴을 보는 건 큰 보람이다. 그리고 방문했던 학교 학생들이 길에서 박민준 사무국장을 알아보고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또 언제 펜싱 수업 하러 오세요?’라고 물었을 땐 펜싱이라는 스포츠로 조금이나마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클럽 내 전문 선수반 인원은 31명 정도로 더 디테일한 동작과 게임 운영방법을 가르친다. 이 아이들

이 지금도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있는 만큼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들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앞으로 클럽의 목표를 물었다. 펜싱 종목 중 현재 ‘에빠’와 ‘사브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플리레’ 종목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문코치들을 추가 영입하고 종목에 맞는 선수도 키울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선수층을 늘려 지방 기반의 클럽들도 다양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라는 포부를 내비쳤다.



(사)부산펜싱클럽 연혁

- 2021. 07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사업 공모 선정
- 2021. 09 부산광역시청 사단법인 등록허가 (사)부산펜싱클럽 법인 등기
- 2021. 10 펜싱 프로그램 운영 개강
- 2022. 08 (사)부산펜싱클럽 현판식 및 제1회 사단법인부산펜싱클럽남녀펜싱대회 개최

(사)부산펜싱클럽 소속 선수 주요 수상 내역

- 제34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 남자 에빠 개인전 3위
- 2022 제51회 회장배전국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 남·여 에빠 단체전 3위
- 2022 부산광역시협회장배 남녀펜싱선수권대회 에빠 개인전·단체전 남·여 1, 2위 초등부 사브르 1위, 초등부 에빠 3위
-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 남·여 에빠 단체전 3위
- 2022 서부교육청 신인선수 선발대회 에빠 남자초등부 1위, 에빠 여자초등부 2, 3위 에빠 남·여자 중등부 1위
- 2022 신서부 소년체육대회 남·여 중등부 1, 2,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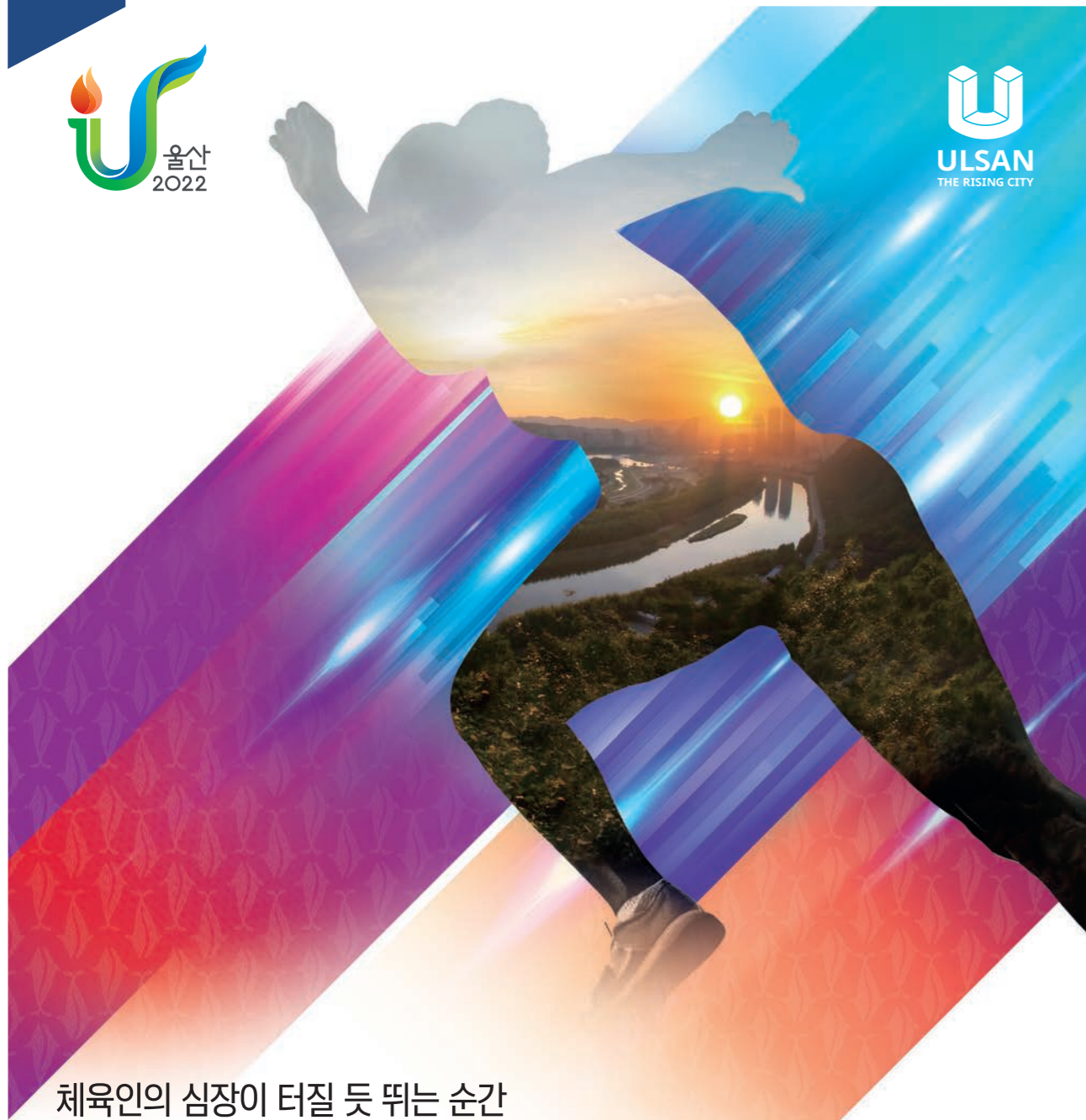


저희 클럽은 펜싱을 생활 속 스포츠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Mini Interview **박연규** (사)부산펜싱클럽 회장

열정적인 태도로 부산 거점 펜싱 꿈나무들 육성에 힘을 보태고 클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박연규 회장은 부산펜싱클럽의 원동력이다. “저희 부산펜싱클럽은 국내 유일·최초의 사단법인 펜싱 스포츠 단체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다문화·다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펜싱이라는 종목은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데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 클럽의 코치와 직원분들도 선수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열정 덕에 현재 부산펜싱클럽 출신인 청소년 국가대표 및 상비군들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펜싱을 떠올리면 접근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 클럽은 펜싱을 생활 속 스포츠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펜싱 교실도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을 통해 선수 선발부터 육성까지 도와주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펜싱 인재를 발굴해 부산의 명예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체육인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순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2019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개최되지 못했던 전국체육대회가 드디어 돌아왔다!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선수들은 물론이고,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열기 속에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했다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체육인들의 활약을 들여다보자.



3년 만에 정상 개최, 열정을 불태우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함께 뛰는 울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7일간 울산종합운동장 등 73개 경기장에서 49개(정식 46개, 시범 3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18,769명, 임원 8,837명, 재외한인단체 1,294명이 참가하였다.

부산광역시는 49개 종목에 선수 1,142명, 임원 552명이 참가하였고 46종목에서 금 57개, 은 55개, 동 67개, 총 179개의 메달을 획득, 총득점 38,153점으로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총득점은 종합 7위 충청북도와 144점 차, 종합 10위 울산광역시와 3,240점 차였으며, 제100회 대비 2,904점이 상승하였다.

49개 종목은 골프, 궁도, 근대5종 등 '기록 종목(22개)', 농구, 럭비, 배구 등 '단체 종목(8개)', 검도, 바둑, 배드민턴 등 '개인단체(8개)', 당구, 레슬링, 복싱 등 '개인(체급) 경기(8개)'와 함께 '시범종목(3개)' 보디빌딩, 합기도, 족구이며, 각 종목은 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1위는 메달 381개(금 138개, 은 111개, 동 132개), 총득점 63,543점을 획득한 경기도가 차지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었던 대회였던 만큼 선수들은 그동안의 열정을 아낌없이 불태웠다.

THE 103rd NATIONAL SPORTS FESTIVAL

감격스러운 기록 행렬

이번 대회에서 부산광역시는 럭비, 배드민턴, 사격, 세팍타크로, 에어로빅 합합, 요트 종목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고, 근대5종 종목이 종합 3위에 올랐다. 럭비(1,295점), 에어로빅(1,215점), 요트(593점), 배드민턴(1,163점), 볼링(623점) 종목은 전년 대비 500점 이상 상승한 고득점을 기록하였다. 이 중 세팍타크로에서는 무려 5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또한 종목별로 의미 있는 우승이 쏟아졌다. 먼저,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김민규 외 5명으로 구성된 검도 남자일반부가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59년 만에 검도 종목 우승을 거머쥐었다. 8강 울산(울산시청), 준결승 대구광역시(달서구청)를 상대로 승리한데 이어, 결승에서는 경상남도(창원시청)와 겨뤄 2승 1패로 우승하였다. 부산검도선수단은 창단과 해체를 거듭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었기에 이번 우승은 더욱 값진 결실이었다. 이어서 부산체육고등학교 소속 이준서 외 24명으로 구성된 럭비 고등부



가 1986년 제67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36년 만에 럭비 종목 우승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외국어대학교 소속 구보는 외 6명으로 구성된 배드민턴 여자 대학부가 1992년 제73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30년 만에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우승을 안겨주었다. 럭비 고등부는 준결승에서 경기도(백신고등학교)와 겨뤘으며, 결승에서는 경상북도(경산고등학교)를 상대로 12대 10으로 승리하였고, 배드민턴 여자 대학부는 단체전 준결승에서 전라북도(군산대학교)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 결승에서도 서울특별시(한국체육대학교)와 겨뤘 3대 0으로 승리하였다.

독보적인 실력의 선수들이 활약

종목별 의미 있는 우승과 더불어 이번 대회의 특징 중 하나는 다수의 다관왕이 나왔다는 점이다. 3관왕이 4명, 2관왕이 12명이나 나오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3관왕을 차지한 선수는 '에어로빅' 종목의 류주선(부산광역시체육회)·차지원(부산동여자고등학교), '역도' 종목의 김수현·손영희(부산광역시체육회)이다. 2관왕을 차지한 선수는 '배드민턴' 종목의 김유정·김혜정·이유림(삼성생명), '사격' 종목의 김상도(KT)·박대훈(부산광역시청), '에어로빅' 종목의 김한진·김현지·윤창일(부산광역시체육회)·박찬현(부산체육고등학교), '수영' 종목의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이송은(사직고등학교), '자전거' 종목의 이혜진(부산지방공단스포윈)이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선수 및 임원, 시민들의 협조로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대회기가 전달되며 막을 내렸다. 부산광역시는 다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종목별 결과 분석을 토대로 팀을 재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숫자로 알아보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결과



종합순위 8위	총득점 38,153점	메달 179개 (금 57, 은 55, 동 67)
종합입상 7개 종목	우승 종목 럭비, 배드민턴, 사격, 세팍타크로, 요트, 에어로빅 합합	3위 근대5종

전년 대비 500점 이상 상승 종목

럭비(+1,295), 에어로빅(+1,215), 배드민턴(+1,163), 볼링(+623), 요트(+593)

다관왕

- 3관왕** 에어로빅 류주선(부산광역시체육회)·차지원(부산동여자고등학교)
역도 김수현(부산광역시체육회)·손영희(부산광역시체육회)
- 2관왕** 배드민턴 김유정·김혜정·이유림(삼성생명), 사격 김상도(KT)·박대훈(부산광역시청)
에어로빅 김한진·김현지·윤창일(부산광역시체육회)·박찬현(부산체육고등학교)
수영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이송은(사직고등학교), 자전거 이혜진(부산지방공단스포윈)

특이사항

- 세팍타크로** · 5년 연속 종합우승
- 검도** 남자일반부 - 부산광역시체육회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이후 **59년 만에 우승**
- 배드민턴** 여자대학부 - 부산외국어대학교 1992년 제73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이후 **30년 만에 우승**
- 럭비** 고등부 - 부산체육고등학교 1986년 제67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이후 **36년 만에 우승**

꿈을 향해 달려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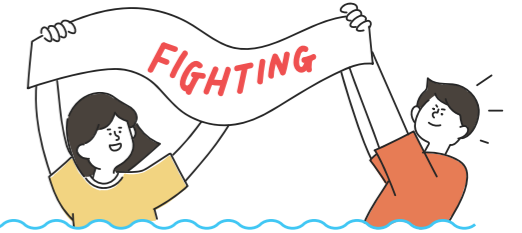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아대학교 선수단을 만나다.

글 _ 제2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오수민



이번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동아대학교 소속 선수단은 6개 종목 60명이 출전해 뜨거운 선전을 펼쳤다. 경기 결과 4개 종목에서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부산의 위상을 높인 동아대학교 선수들. 입상한 선수들을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다.

부산스포츠 기자단(가나다순) | 1기 김소연, 김수현, 송민수 | 2기 남윤주, 박은경, 반종완, 오수민, 이정민



Run for your dreams!

Mini Interview

김권호 | 레슬링 | 남자대학부 자유형61KG급 금메달
우승만을 목표로 경기에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 선수 기간 동안 부상 없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자만하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황인종 | 레슬링 | 남자대학부 자유형65KG급 은메달
대학 생활 중 마지막 시합이라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쳤습니다. 졸업 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레슬링부 파이팅! 덧붙여 레슬링은 과격하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재미있고 매력 있으니, 부산 시민 여러분도 꼭 레슬링을 체험해 보세요!

서우석 | 레슬링 | 남자대학부 자유형61KG급 은메달
다른 선수들에 비해 다리 힘이 부족해 하체 운동에 신경 쓰며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체력을 기르고 방어 기술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도동오 | 레슬링 | 남자대학부 자유형74KG급 동메달
첫 대회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첫 경기만 이기자는 생각으로 임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준위 | 레슬링 | 남자대학부 자유형57KG급 동메달
체중조절에 신경쓰며 이번 대회를 준비했고, 반드시 1등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인성이 좋은 선수가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대희 | 육상 | 남자일반부 110m허들 동메달
대학 졸업 전 마지막 대회 참가였던 만큼 후회 없이 뛰었습니다. 앞으로 100m 허들 종목에서 13초 대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아대학교 육상부를 서포트 해주신 정영삼 감독님, 스포츠지원과 선생님들, 동아대학교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육상이 매력 있는 스포츠라는 걸 부산 시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찬민 | 육상 | 남자일반부 장대높이뛰기 은메달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기술 훈련을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로프나 철봉운동 등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5m 이상의 높이를 뛰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행석 | 태권도 | 남자대학부 -63KG급 은메달
전국체육대회가 큰 대회인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어 태권도 종목을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민웅 | 씨름 | 남자대학부 역사급105KG 은메달
올해 부상을 당하고 두 번의 시합을 나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체중조절과 하체운동을 병행하며 전국체육대회를 나가게 되었고, 좋은 성과를 거뒀 기쁩니다. 앞으로 실업팀에 가서도 정상급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진출처_ 동아대학교 홍보팀

속도감 있는 팀플레이

배구

실내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배구'가 V-리그 프로배구 시즌을 맞아 화려하게 개막했다. 파워 넘치는 스파이크와 강력한 블로킹 등 화려한 기술을 즐기기에 앞서 포지션 용어와 규칙에 대해 알아보며 배구를 더욱 즐겨보자.

배구의 기본 규칙

- ⑤ 9인제와 6인제 경기 존재. 6인제 배구는 프로리그나 국제경기에서 진행
- ⑤ 경기는 5세트 랠리 포인트 방식
 - 랠리 포인트: 랠리에서 이겼을 때마다 점수를 얻는 득점제*
 - 5세트(25-25-25-25-15)로 진행하며 어느 한 팀이 25점을 획득하면 세트가 마감되고 코트를 변경한다. 5세트에서는 8점에서 코트를 변경한다. 듀스 존재, 머리와 발이 사용 가능
- ⑤ 3번 이내 터치로 상대방 진영에 넘겨야 한다. 진영 밖으로 떨어지거나 공이 안테나에 맞으면 그 공을 마지막에 건드린 팀이 실점
- ⑤ 로테이션: 리시브(서브를 받는) 팀이 득점을 하여 서브권을 얻게 되면 그 팀 선수들은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자리 이동
- ⑤ 1세트에 최대 6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명의 선수 교체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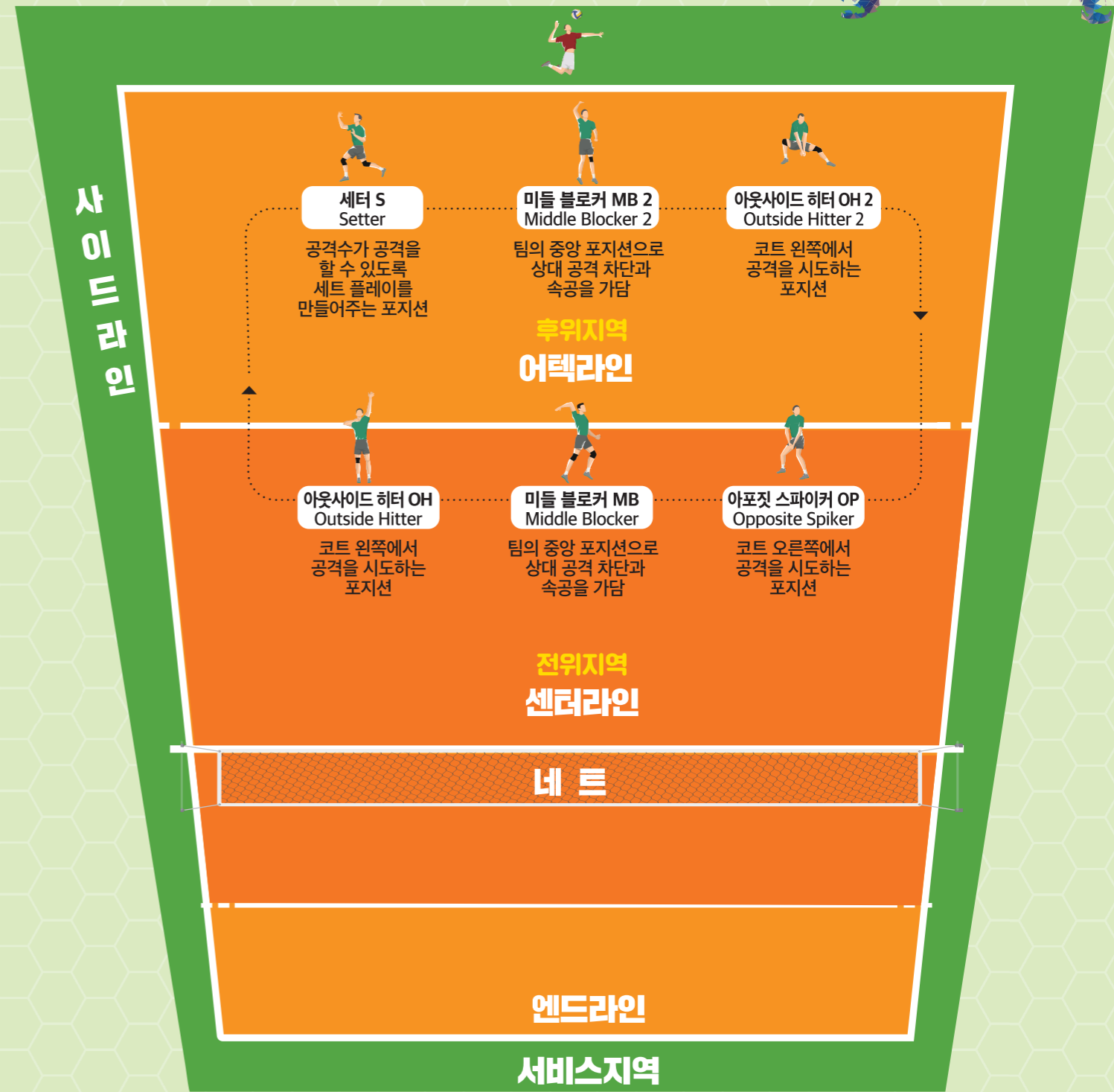
배구의 반칙 종류

- ⑤ 배구에서 반칙은 곧 상대의 득점이다. 중계 시 '범실'이라고도 표현하며, 팀 득점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반칙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반칙의 종류
 - 터치 네트: 선수의 신체 일부가 네트에 접촉하는 것
 - 오버 네트: 경기 도중 선수의 신체 일부가 네트를 넘어 상대방 진영에서 공에 닿았을 경우 (블로킹 할 때는 예외)
 - 중앙선 침범: 공이 바닥에 닿기 전에 공격자의 신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서는 행위
 - 백어택 라인 침범: 후위에서 공격할 시 어택라인을 밟거나 넘어가는 경우
 - 서브라인 침범: 서브 시 라인을 밟거나 넘어가는 경우
 - 더블컨택: 같은 선수가 공을 2번 연달아 토스한 것
 - 포히트: 공을 3번의 터치 이내에 상대에게 넘기지 못한 경우
 - 캐치: 공을 잡거나 안는 경우 (손으로 감싸 쥐듯이 밀어내는 경우 선언)

* 리시브한 팀이 랠리로 이겼을 때 서브권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의 공격과 범실로도 점수가 나도록 하는 방식

수비를 전문으로 하는 포지션. 서브, 블로킹, 공격 불가능. 팀 내 선수들과 다른 색 유니폼 착용

리베로 L Lib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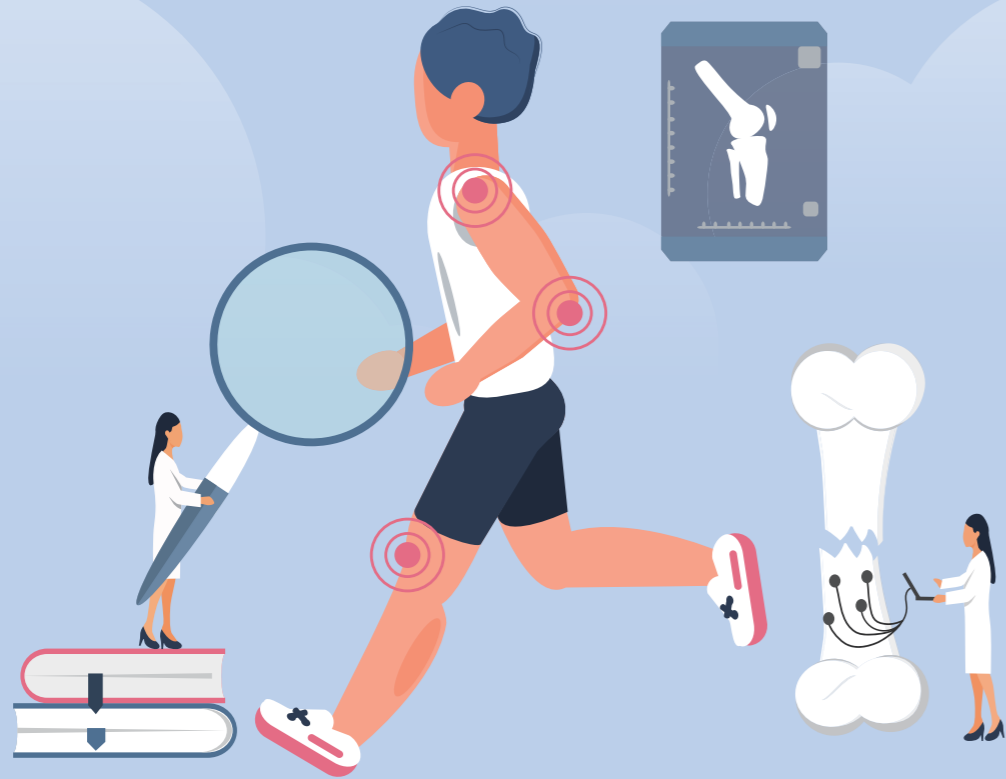


오늘의 10분 운동

구름처럼 가벼운 관절을 위해

날씨가 추워질수록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 이유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경직된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작은 부딪힘에도 큰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계절, 어떤 대안이 있을까? 실내에서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법에 주목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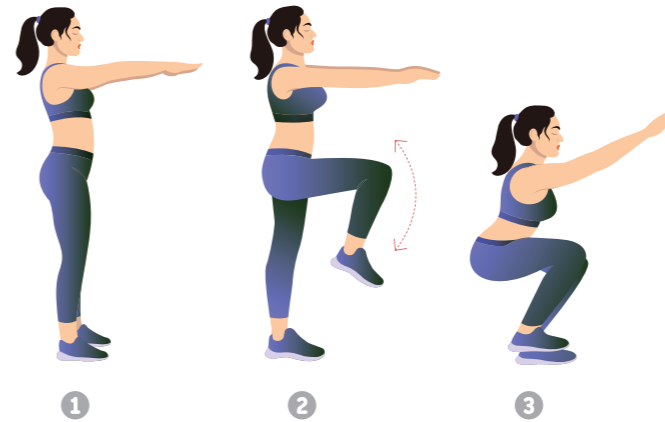
📍 왜 겨울에 더 아플까?

날씨가 추워지면 열 발산을 막기 위해 몸은 자연스레 근육과 인대를 수축한다. 이렇게 되면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허리나 무릎 등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은 특히 겨울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는 관절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절 부위에 온찜질을 하거나 발목 토시를 착용해 따뜻하게 보호하

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외출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 족욕을 하여 굳어있는 관절을 이완시켜 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야 한다. 또한 운동량이 줄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운동할 때 기억해야 할 5가지

- ① 새벽 운동보다 '오후 운동'을 할 것
- ② 준비운동은 스트레칭보다 '걷기'를 먼저
- ③ 관절 통증 예방하려면 '체온 유지' 필수
- ④ 자신에게 맞는 운동의 '종류와 강도' 중요
- ⑤ 영하 5도 이하 추위엔 '실내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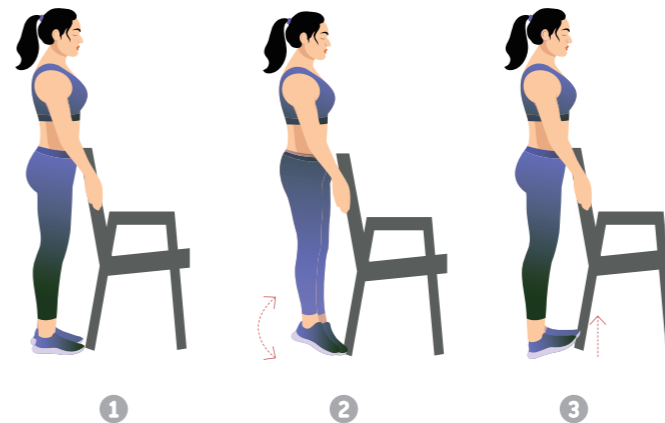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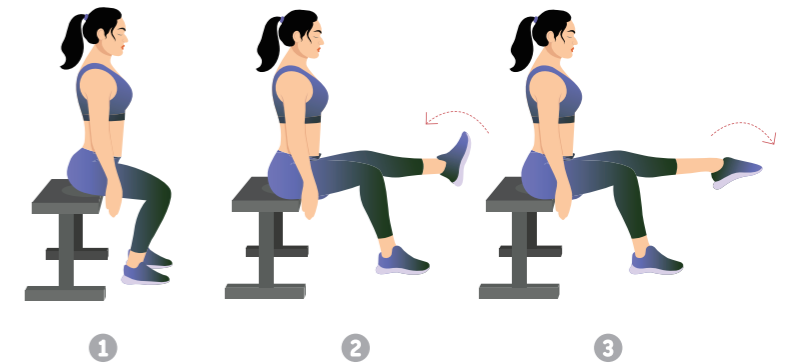


📍 동절기 무릎 관절 통증을 지켜라

- 01 양팔을 앞으로 펴고 정자세로 선다.
- 02 한쪽 다리를 90도까지 들어 올려 체중을 지지하고 선다.
- 03 체중을 실은 쪽의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며 내려갔다가 다시 무릎 펴기를 30초씩 5회 반복한다.
- 04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 수축된 다리 근육을 짹짹 늘려주기

- 01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운다.
- 02 한쪽 다리를 들고 발끝을 세워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 03 이후 발끝을 발목과 일직선이 되도록 천천히 편 후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 04 2번과 3번 동작을 연결해 20회씩 3번 반복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 혈액순환을 위한 종아리 운동

- 01 의자나 벽을 짚고 선다.
- 02 무릎을 곧게 편 상태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발끝으로 서서 3초간 정지한다.
- 03 다시 정자세로 선 후, 발끝을 들어 올려서 뒤꿈치로 서서 3초간 정지한다.
- 04 2번과 3번 동작을 연결해 20회씩 세 번 반복한다.

환절기, 감기를 쫓아내자



10°C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로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지만, 감기는 증상을 조절하는 약만 있고 치료제는 없다.

그렇다면 환절기에 쉽게 걸리는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 외출 시 따뜻하게 입고 수시로 물 마시기



감기는 추운 것보다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체온의 균형이 깨지면서 쉽게 걸린다. 쌀쌀할 때 외출할 시 겹옷을 꼭 챙기고 목을 보호해야 한다. 실내 온도는 20~22°C, 습도는 40~50%로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지고 상부 호흡기계의 혈액 흐름이 좋아져 도움이 된다.

✓ 평소보다 조금 더 식사하고 1~2시간 더 자기



감기는 평소보다 식사량을 적게 했는데 무리하게 활동할 경우 잘 걸린다.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식사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한두 시간 더 잠을 자는 것도 좋으며 밤 10시에서 11시에는 취침해야 한다. 면역세포가 염증을 줄여주는 작업을 수면 중에 진행하기 때문이다. “몸의 면역성과 기능에 관련해서는 단순히 영양소 하나가 결정하기 보다는 약간 위를 불려서 포만감이 살짝 들 정도로 음식을 고르게 먹어야, 장기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원이 들어왔다고 몸이 인식하고 모든 기능을 잘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에는 평상시보다 살짝 배부르게 먹고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게 도움 됩니다.” (박민선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 비타민D 보충제는 평소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적



감기에 비타민C가 든 제철 과일과 나물이 도움 된다는 것은 오래된 상식이다. 하지만 실내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D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더욱 예방에 효과적이다. 영국 퀸 메리대학 Adrian R Martineau 교수 연구팀의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D가 감기 등을 포함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만 이미 감기에 걸렸을 때 빠른 치료를 위해 갑자기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하며, 평소 꾸준히 복용했을 때 감기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 감기 기운이 느껴지면 커피 멀리하고, 생강차 한 잔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커피는 불편한 증상과 통증을 못 느끼게 해 계속해서 몸을 무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커피의 이뇨 작용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방해한다. “감기에 가장 좋은 차 하나만 꼽자면, 생강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감기 초기에 몸이 으슬 으슬하면서 목이 따끔따끔할 때 생강차를 마시면, 생강의 성분이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도움 뿐 아니라 소염과 진통 작용으로 기관지에 통증과 염증을 줄여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승훈 교수/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다만 39°C 이상의 열이 나거나 기관지염이 심한 사람은 생강차를 피하는 것이 좋다. 가래가 많은 사람은 도라지차, 기침이 많은 사람은 오미자차도 번갈아 가면서 복용하면 훨씬 좋다.

기필코, 반드시, 마침내 해낼 당신에게

“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인정해주면 될 일이었다.
내가 나의 일을 더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기로 했다.

”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저자 최서영 / 출판사 북로망스

“잘될 줄 알았어, 해낼 줄 알았어!”

근사하게 늙고 싶어 오늘도 열심히 사는 프리랜서 최서영 작가는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2017년부터 유튜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유튜브 '가전주부', '말많은소녀' 채널을 통해 현재까지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에게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계발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 수많은 독자들은 저자를 롤모델이자 인생 선배로 삼고 있으며, 그녀의 힘 있는 동기부여 메시지를 책으로 출간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중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주제들을 엄선하고 공들여 집필한 끝에 마침내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가 탄생했다.

넘쳐나는 자기계발서들 사이에서 수십만 독자들이 유독 최서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단호하고도 다정한 공감과 따끔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이 적절히 어우러져 독자들이 필요했던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탐구한 다음, 내 욕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관계나 사회 생활에서 힘들었던 지점들을 날카롭게 짚어보고,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힘도 길러준다. 한마디로 “나 자신과 나의 인간관계, 나의 미래까지 돌아보고 설계하게 만드는 책”이자 “삶의 철학을 세우게 해주는 책”이다. 인생을 적당히만 살고 싶지는 않은 이들에게, 이왕이면 스스로에게 최고만을 주고 싶은 이들에게 원동력이 될 것이다.

Composition of Books

프롤로그

제 1 장 나한테 관심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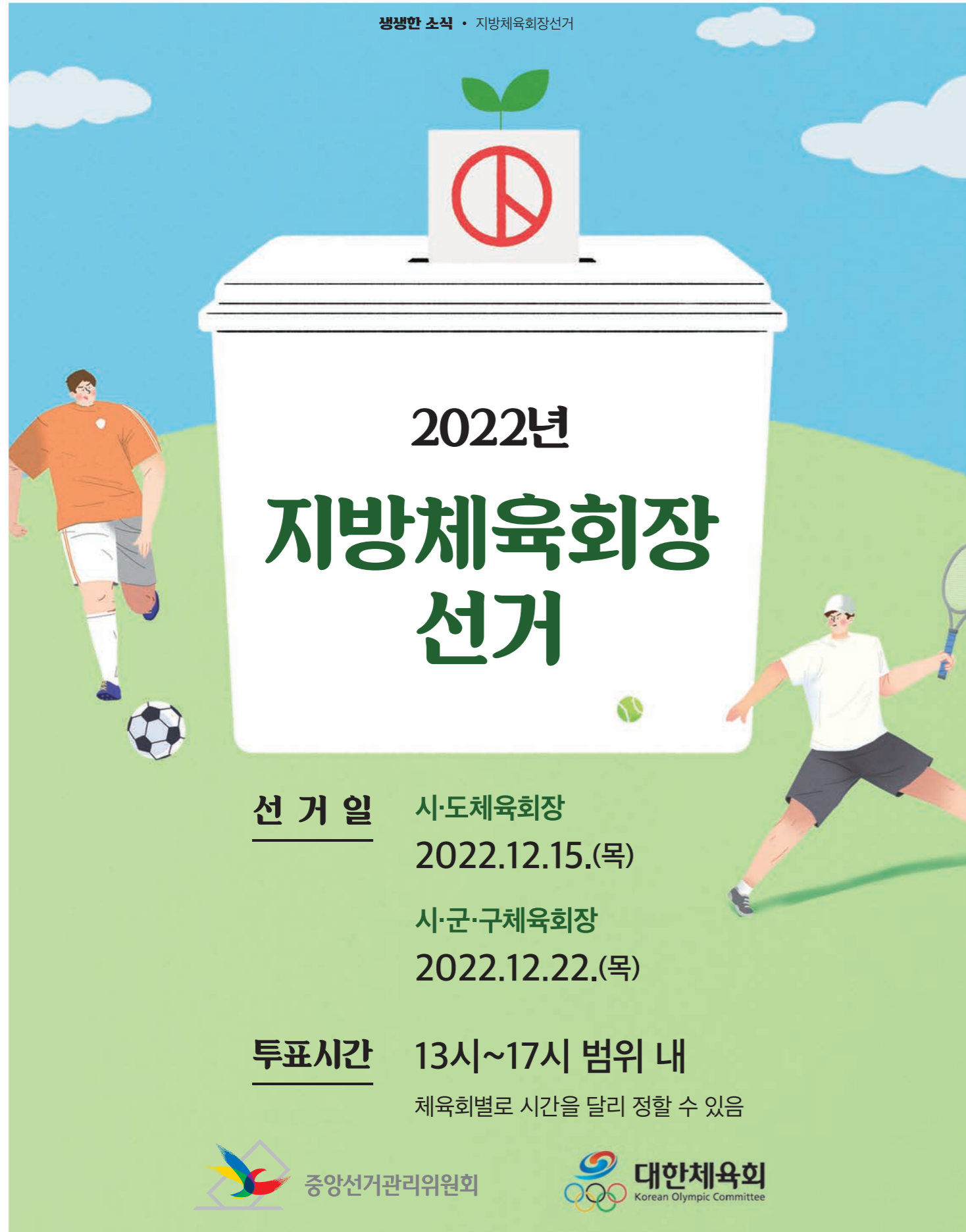
제 2 장 관계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제 3 장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제 4 장 잘될 수밖에 없으니까

에필로그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인생철학은 필요하니까

부 록 나에게 필요한 인생 문장들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일

사·도체육회장
2022.12.15.(목)

사·군·구체육회장
2022.12.22.(목)

투표시간 13시~17시 범위 내
체육회별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Korean Olympic Committee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일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선거 : 2022. 12. 15.(목)
- ✓ 부산광역시구·군체육회장선거 : 2022. 12. 22.(목)

선거운동기간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선거
→ 2022. 12. 6.(화) ~ 12. 14.(수) [9일간]
- ✓ 부산광역시구·군체육회장선거
→ 2022. 12. 13.(화) ~ 12. 21.(수) [9일간]
-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주체

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 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돌 수 없음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이용(직접 통화하는 방법만 가능)
 - 문자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 이용
→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SNS 포함) 전송
 - 옷깃 및 어깨띠 착용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9cm×5cm 이내)
 - 선거일 소견발표
 - 정책토론회
→ 체육회마다 개최 여부는 다를 수 있음
※ 선거사무소 설치 불가

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체육회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주요 금지 사례

- ☞ 후보자나 그 가족이 투표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당선목적)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낙선목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행위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체육회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의 집 등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 ☞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선거일 소견발표는 제외)을 하는 행위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탁선거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소속 단체의 징계 등에 따라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PORTS NEWS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배구 대회 개최

38개 클럽, 500여 명의 동호인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기획한 Beginner 대회는 부산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미등록 동호인과 운동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의 동호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높여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도, 파크골프 종목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된 Beginner 배구 대회는 지난 10월 3일(월) 기장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총 38개 클럽(남자 16개, 여자 22개), 501명의 동호인이 참가하며 성황리에 대회가 치러졌다. 배구는 단체종목으로 초보 동호인의 참여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경기인 9명 중 5명의 초보 동호인을 포함해 경기를 진행하였다.

본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Beginner 대회가 수준 높은 실력자만 참가하는 일반적인 대회 시스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어 미등록 동호인과 초보 동호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체육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SPORTS NEWS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대한체육회 간담회 개최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16개 구·군체육회 참석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16개 구·군체육회는 지난 11월 3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가 개최한 2022년 하반기 지방체육회장 순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대한체육회장과 부산광역시체육회장, 16개 구·군체육회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체육계 주요 현안 사안 설명 및 지방체육회의 각종 의견수렴과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논의, 공정선거 결의 등 지방 체육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방체육회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기회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정책 주요 현안 설명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상황 ▲민선1기 지방체육회 주요성과 ▲2023년 대한체육회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 등을 설명했고, 지방체육회의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2년 12월 실시되는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 구호 제창과 참석자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NEWS

구·단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제19회 중구청장배체육대회

중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3일(일) 제19회 중구청장배체육대회를 부산 디지털고등학교 외 7개소에서 개최, 9개 종목 총 810명(게이트볼 40명, 농구 80명, 댄스스포츠 40명, 배드민턴 100명, 볼링 50명, 족구 150명, 축구 150명, 테니스 100명, 어울림바둑 100명)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개회식이 진행되었으며, 식전공연으로 막을 여는 등 성황리에 대회의 포문을 열었다.



서구체육회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격려

지난 10월 8일(토)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방문 및 격려를 위해 문수를 러경기장에 서구체육회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지도자 및 서구청장, 서구청 문화관광과에서 내빈으로 참석하여 선수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구청 소속 허봉 선수는 응원에 힘입어 스프린트 500m 결승에서 41.713초를 기록, 개인대회신기록을 갱신하며 3위로 입상하였다.



동구체육회

2022 구민운동회

2022 구민운동회가 동구체육회의 주관으로 4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동구민의 단합과 생활체육인을 하나로 만드는 귀중한 행사에 국회의원, 동구청장, 체육 임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12개 동대표 선수들은 각 종목 경기에 참여해 성적보다 함께하는 데 의미를 두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영도구체육회

제14회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2일(토) 마린 축구장 및 해사고 축구장에서 6개 중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14회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영도구청장, 영도구체육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경기 결과 작년에 이어 부산남중학교가 우승을, 해동중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부산진구체육회

제8회 부산진구협회장배 족구대회·제13회 부산진구청장배 탁구대회

지난 10월 2일(일) 황령산레포츠포공원에서 제8회 부산진구협회장배 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경기에는 24개팀, 약 1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대회 결과 관내 1부·2부 모두 원-원 족구클럽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일) 초연근린공원체육관에서 제13회 부산진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으며, 약 1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최다 수상 팀은 11개 트로피를 받은 두드림 클럽이다. 두 대회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동래구체육회

제18회 동래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

지난 10월 9일(일)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와 동래중학교에서 제18회 동래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초등학교생 80명, 중학생 140명이 참여하였으며, 동래구체육회장, 동래구청장 등 많은 내빈이 방문하여 대회 개최를 축하하였다. 대회 결과 내산초등학교와 여명중학교가 각 부문 우승하며 막을 내렸다. 동래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유소년축구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남구체육회

2022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체육대회

남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3일(일) 약 2,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포체육공원 외 6개소에서 2022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백운포체육공원에서 다함께 모여 개회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각 장소에서 경기를 펼치며 성황리에 체육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북구체육회

2022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지난 10월 22일(토) 북구체육회 주최 및 주관으로 2022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이 진행되었다. 북구민 가족 41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통영시 일대에서 열린 이번 생활체육실천광장은 어드벤처타워, 루지, 케이블카 등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마무리되었다.



해운대구체육회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9월 27일(화)부터 10월 8일(토)까지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며 응원을 보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결과, 요트·씨름·펜싱·볼링·태권도 등 총 5개 종목에 출전한 가운데, 요트(실업팀 2명, 고등부 4명), 펜싱(고등부 3명), 태권도(고등부 1명)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사하구체육회

2022 사하구청장배(기) 생활체육대회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10월 16일(일) 2022 사하구청장배(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개최식에는 사하구청장을 비롯해 여러 내빈들과 각 종목 협회장 및 축구 동호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지난 10월 8일(토)부터 30일(일)까지 진행된 생활체육대회는 을숙도축구장 등 11개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11개 종목 2,900여 명의 사하구민이 참석했다.



금정구체육회

2022 금정구청장배(족구, 배드민턴, 그라운드골프) 대회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0월 16일(일) 금정축구장에서 제15회 금정구청장기 족구대회를, 스포원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금정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20일(목) 오륜동인조잔디구장에서 제14회 금정구청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맑은 가을하늘 아래 많은 동호인이 참가해 갈고닦은 실력과 기량을 발휘했으며, 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은 친목 도모와 체력을 증진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강서구체육회

2022 강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2022 강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0월 16일(일)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동호인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사회생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에 의의를 두고 클럽별 상호친목을 다지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연제구체육회

2022 연제구민 체육대회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3일(일)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연제구민 12개 동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연제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애드벌론 공 굴리기, 목표달성 바스켓, 풍선 터뜨리기 등 팀 대항 종목과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800m 계주 등 동 대항의 경기를 통해 구민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결과 거제3동이 종합 우승을, 연산1동이 준우승을, 거제2동이 장려상을 각각 차지하였다.



수영구체육회

2022 수영구청장배 대회

수영구체육회는 2022 수영구청장배 회원종목단체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통합개회식에는 각 종목 임원 및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지난 10월 8일(토) 탁구대회를 시작으로, 14일(금) 골프대회, 23일(일)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족구, 축구, 태권도, 택견, 궁도 등의 종목을 각각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수영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발전과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는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



사상구체육회

2022 학교운동부 및 유소년체육 육성지원금 전달식

지난 10월 19일(수)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 학교운동부 및 유소년체육 육성지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사상구 관내 8개 학교 운동부와 1개의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육성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소년체육대회에서 선전한 엄궁중학교 김준서(조정), 모덕초등학교 김수민(양궁·개인), 모라중학교(양궁·단체)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사상구와 사상구체육회는 부산광역시 16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운동부가 있는 모든 학교에 22년째 육성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기장군체육회

기장군민걷기대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기장군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군민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정관 중앙공원에서 출발하여 모전교를 지나 좌광천 일대를 걷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진행된 행사에 많은 기장군민 가족들이 참가하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센터 인포 Center Information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 고구마 수확 체험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 63명은 지난 9월 29일 (목) 김해시에서 고구마 수확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단원들은 실제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농산물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2023학년도 대입 수험생 30% 특별 할인 이벤트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23학년도 대학 수험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수험생들의 심신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제시하면 센터 내 모든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3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2023년 2월 28일(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문의 _ 북구국민체육센터 051-365-7070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제28회 북부소년체육 수영대회 및 2022학년도 신인선수 발굴 수영대회 개최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5일(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제28회 북부소년체육 수영대회 및 2022학년도 신인선수발굴 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신인

수영 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약 2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 인포 Center Information



영도국민체육센터



2022 찾아오는 생존수영교실 운영

어린이의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자기 안전 확보를 위한 찾아오는 생존수영교실이 지난 10월 4일(화)부터 26일(수)까지 대연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수업은 기본적인 발차기와 숨쉬기, 구명조끼 사용법, 구조장비 사용법 등 알찬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질 높은 수업으로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게 평가되었다.



부산실내빙상장



빙상체험교실 진행

부산실내빙상장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및 부산광역시북구청과 협약하여 빙상체험교실을 진행 중이다. 11월에는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2,000여 명과 중학교 3개교 380명이 빙상체험교실에 참가할 예정이며, 한누리 유치원 52명도 일일 강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NEWS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식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부산선수단, 종합 5위 달성

금 67·은 95·동 73개 획득, 총 120,631득점



지난 10월 19일(수)부터 24일(월)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장애인선수단이 금 67, 은 95, 동 73개를 획득하며 종합득점 120,631점으로 종합순위 5위를 차지하였다.

부산광역시선수단은 육상과 역도, 탁구실업팀의 활약에 힘입어 목표보다 높은 성적을 달성했으며, 대부분 종목에서도 당초 예상한 수준의 성적을 상회하였다. 더불어 전국체육대회 시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다종목참가 및 중증·여성 선수 다수 참가 시도에 수여하는 '도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신인 발굴에 성공한 파크골프, 사이클, 양궁, 배드민턴은 종목별 순위에서 상위권에 도약하며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는 수영 및 탁구실업팀 창단, 스포츠 고용선수 확대 운영 등 그간 전문체육 육성에는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올해도 실업팀 확대 운영, 종목 전임지도자 확충 등 전문체육 예산확보 및 스포츠 고용선수 확대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다관왕

- 4관왕 육상(신유성), 탁구(김기태, 실업팀)
- 3관왕 양궁(김강훈), 육상(남기원, 하수학), 수영(박미진, 실업팀), 역도(이석만, 허윤희)
- 2관왕 역도(권태현), 탁구(김창기, 김선길), 육상(정석근), 사이클(김종규, 장우준), 수영(이제이, 엄윤경)

NEWS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제41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기 및 대선주조배 축구대회

지난 10월 9일(일) 부산광역시축구협회와 대선주조(주)가 주최·주관하는 제41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기 및 대선주조배 축구대회가 기장월드컵빌리지 외 4곳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연령대별 5개부(청년·장년·노장·실버·황금)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64개 팀 1,2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대회 결과 각 부문 우승팀

청년부 : 금정구 / 장년부 : 남구 / 노장부 : 서구
실버부 : 동래구 / 황금부 : 부산진구



거점스포츠클럽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지난 10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10개 종목 4,000여 명이 참가하며 전국 220여 스포츠클럽 간 교류의 장을 펼쳤다. 거점스포츠클럽은 테니스 초등 전문선수반 1팀이 출전하여 단체 3위에 입상하였다.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2022 어울림문화공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은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어울림문화공원 합동소방훈련에 참여하였다. 이번 훈련은 어울림문화공원 내 입주한 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전훈련이 진행되었다. 합동소방훈련 참여로 위기 상황 시 대처 요령을 직접 배우며 이용객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거문화 및 레저산업을 선도하고 교육보국을 실천하는 신용의 기업

동원 100년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동원이 「DREAM WORK」 브랜드로 공유오피스 사업을 함께합니다.



초고층 부산북항 SKY.V

초고층 부산센텀 SKY.V

초고층 울산우정 SKY.V



물류단지의 새로운 거점 **동영 법송** 동원일반산업단지
(시공중 / 기업유치 중 ■문의전화: 055-345-1040)



바다 위 첨단 인프라 **고성 봉암** 동원일반산업단지
(준공필 / 기업유치 중 ■문의전화: 055-648-0461)

기업신용평가 AAA등급
코스닥 상장 우량기업

포브스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시공능력평가
전국 26위 / 부·울·경 1위

주택건설 47년
8만 1천여 세대 공급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공단개발사업 적극 참여기업

DW 동원개발 **DW** 동원종합건설 SKY.V | 비스타동원 | 동원로얄듀크 | 동원시티비스타

대표이사 회장 장복만 부회장 장호익

통영·기장·양산 DW 동원로얄컨트리클럽 DW 동원제일저축은행 DW 부산해사랑 DW 동원문화장학재단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The new EQE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The all-electric EQ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스타자동차에서 만나보세요.



MERCEDES-EQ

스타자동차

대표번호 1688-2369(benz)
홈페이지 www.mbstar.co.kr

전시장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금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기장 051-901-2390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47,B1

인증중고차
사직 051-775-9820 부산 연제구 경기장로 21
울산 052-701-051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금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중로 74번길 19(삼산동)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강남청년군청년용하리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20
<http://www.finebesteel.com>

부산시 사상구 광창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corea.com>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6-1
Tel: 051-322-1177 Fax: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유권집 담보대출
집안에서 간편하게!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는
진짜! 모바일 아파트담보대출

ONE아파트담보대출



담보대출도 역시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에서!



ONE하는 상품을 선택!
고정금리, 변동금리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ONE하는 용도에 맞게 신청!
아파트 구입할 때, 갈아타고 싶을 때,
생활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필요할 때

ONE하는 직업으로 누구나 가능!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그리고 기타소득자까지

※ONE아파트담보대출은 개별 대출상품이 아닌 상품 조건 제공을 위해 구성한 상품 집합체를 의미하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참조하시거나,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알아두실 사항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상태 및 저희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회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금용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1074 (심의일자 2022.08.25) 유효기간 2022.09.06 ~ 2023.08.31